

제9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
2001.4.10(화)~4.21(토)

시정(보충)질문 답변서

○ 질문의원 : 임 홍 무 의원

○ 보충질문내용

- 고잔동 중심상업지구내 환경미화 관련
 - 보도 및 건물과 건물사이에 적치물 제거방안?
 - 불법 주·정차 단속방안?
- 지하차도 공사로 인하여 차단된 중앙로 조기개통
- 고잔신도시2단계지구내 도로를 동서로 개통할 의향?
-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(활어부류 부분)



안 산 시

- 임흥무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고잔동 상업지구내 보도상 및 건물사이의 노상적치물 제거와 불법 주정·차를 단속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.

----- < 질문 요지 > -----

- 고잔동 상업지구내 보도상 및 건물사이의 노상적치물 제거와 불법 주정·차를 단속할 의향은?

- 먼저 고잔동상업지구내 보도상의 노상적치물 제거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,
-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「21세기 새로운 희망, 녹색첨단산업도시건설」이라는 명제를 안고 출발한 우리시는 그 동안 원곡동, 선부동, 상록수 지역의 주요도로와 상가 밀집지역, 역광장 등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 불법 노점상을 근절시키기 위해 시 산하 전직원을 동원하여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시다만 노점상연합회라는 불법 단체를 구성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저항하여 공권력을 위협함으로써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

- 이에 시에서는 고잔신도시2단계사업지구내 만이라도 단호하고도 확고한 의지로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민간전문 용역업체에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
- 그 외 연합회 가입지역인 상록수, 중앙동, 선부동 지역 노점상 상행위에 대해서는 시민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자율정비 및 단속을 병행하여 노점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.
- 하지만 아직까지도 경제 전반적인 불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민들이 많아 노점상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타 시·도의 효율적인 노점상관리정책 등을 벤치마킹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으며,
- 건물과 건물사이의 적치물 또한, 해당 지역에 대한 불법 건축물 또는 물품적치 여부를 확인하여 불법사항은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행정조치 하는 등 아낌없이 깨끗한 거리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
- 다음은 고잔동 상업지역 불법주·정차 단속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.

- 고잔동 상업지구내 불법 주정·차 단속에 대하여는 중점 단속지역으로 지정하여 불 법주·정차 단속에 임하고 있으나 대형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유동차량이 많은 관제로 불법 주차 차량이 다수 있으며 또한, 화물운송에 따른 잠깐 주차로 인해 다소 불법 주·정차 차량이 있을 수 있습니다.
- 현재 상업지구내 전지역에 대하여 단속반 1개조(공무원2명, 공익근무요원 4명)로 상시 불법 주·정차를 단속하고 있으나
- 향후 고정인력을 증원 배치하여 중점적으로 단속 고잔동 상업지구내 불법주·정차가 근절되어 깨끗한 거리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.
- 중앙동 지하차도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9월 이전에 개통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.

< 질문 요지 >

- 중앙로 지하차도 공사로 인하여 2001. 9월말까지 도로가 차단되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,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중앙로를 9월 이전에 개통할 의향은 없는지 ?

- 안산신도시2단계건설사업 교통시설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중앙로 지하차도는 금년 12월 준공예정이나 시민의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기단축 방안을 검토하여 금년 9월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.
- 질문하신대로 9월 이전 개통 추진시 품질 및 시공성 저하의 우려가 있고, 작업자의 안전에도 위험이 상존하여 9월말 준공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오며
- 우기시를 고려하여 수시로 공정 점검을 통해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.
- 고잔신도시2단계지구내 도로를 동서로 개통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.

— < 질문 요지 > —

- 고잔신도시2단계지구내 도로를 동서로 개통하여 차량을 분산시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할 용의는 없는지 ?

- 시청 앞 연결도로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도로는 8월중에 공용개시 예정이며, 단지내 외곽도로 및 일반필지, 상업부지내 소도로도 금년내 개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. 우선 별망초등학교 앞길을 4월중에 합동 점검을 통해 공용 개시후 하천변길과 연결하여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

- 수산부류중 활어부분의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.

< 질문 요지 >

- 지하에서 운영하던 영업행위(회센터)가 1층으로 올라와 기존상인과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?

- 먼저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시장질서 및 안정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실상과 앞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.

- '98.2월 수산동 개장시 선어, 건어, 젓갈, 패류부류는 수산동에서, 활어부류 중도매인 10명은 지하 활어매장에서 각각 분리운영중 IMF와 더불어 영업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활어중도매인중 8명이 지상 수산동으로 이전대책을 요구하였으나 시장질서 유지 및 수산동매장 협소를 이유로 관리사무소에서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으나 활어 중도매인들은 해당 법인[현 안산수산(주)] 지역유지 및 인근 지역주민들의 동의(1,644명)를 받아 이전의 타당성을 제기하며 집단 민원화 시키며 '99.8월 수산동으로 무단이전하게 되었습니다.
- 이에 관리사무소에서는 해당법인 및 중도매인간 13차례에 걸쳐 대책회의를 논의 하였으나 상호간의 이해 대립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규정의 저촉 등으로 문제해결이 되지 못하여 관리사무소에서는 무단이전 중도매인들에 대하여 관련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한편 원상복구를 하도록 지시하였으나 행정처분만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수산부류 중도매인 10명중 8명은 수산동에서 운영하며 2명은 지하에서 분리운영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승인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.

- 앞으로 시에서는 매장부족 및 시장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0.3월 7,140㎡ 규모의 도매시장 복합빌딩 신축 계획을 수립하였고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금년에 복합빌딩 신축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.
- 금년말에 공사 완공후 2002.1월 중에는 수산동 활어부분 뿐만 아니라 수산부류 매장을 재배치하여 수산동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.
- 아울러 의원님들의 관심어린 애정으로 우리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,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공영 도매시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.
-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